

순천 국제 마그네슘 연구센터 출범

해룡산단 마그네슘부품 중심지 도약 순천시·폭스바겐·충칭대·기업 협약

순천시 해룡산단이 세계 최고 마그네슘 소재 부품 중심지로 조성된다.

순천시는 지난 10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국제 마그네슘 상용화 연구센터 설립 준비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는 이날 독일 폭스바겐과 중국 마그네슘 연구기관인 충칭대 CCMG, 국내 14개 기업 등과 협약식을 열고, 순천 해룡산단을 세계 최고 마그네슘 소재 부품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을 밝혔다.

‘마그네슘 상용화 연구센터’는 순천시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재료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독일·미국·중국·일본 연구기관과 PPM(파인트리포스마그네슘)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 준비단은 국내 연구기관인 재료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내년 1월 연구 인력을 파견해 구성한다.

이를 통해 마그네슘 상용화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13개 국내 기업의 애로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폭스바겐과 CCMG, 미국 GM



지난 10일 순천시 해룡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국제 마그네슘 상용화 연구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 FORD, FCA 등 해외의 주요 기업은 내년 8월까지 공동 과제 발굴을 통해 센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센터는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의 세계적 기술 역량을 결집하게 된다.

특히 수요 기관 중심 상용화 기술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마그네슘 소재 부품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부산 독지가, 광양시에 임야 기부채납

김명옥씨 “광양발전 위해 써달라” 시유지 연계 경관숲 조성키로



은 이웃들을 보살펴왔으며,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부채납한 임야는 구룡산 능선에 있어 광양시 소유의 임야와 가깝다.

광양시는 시유지와 연계한 경관 조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기부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들어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소중한 마음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광양시는 부산에 거주하는 한 독지가가 임야를 조건 없이 기부채납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명옥(89·사진) 씨는 광양시 성황동에 있는 땅 2필지(8264㎡,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를 지역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김씨는 작고한 남편과 함께 지난 1988년 광양을 방문해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소에도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여러

한화솔루션, 코로나 극복 여수사랑상품권 2억 구매

여수시는 한화솔루션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억원 상당의 여수사랑상품권을 구매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인수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총괄임원과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여수시청에서 여수사랑상품권 구매증서 전달식을 했다.

(사진)

한화솔루션은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3일간 진행된 공장 가동정지 정비 작업을 안전하게 마친 것을 기념해 여수사랑상품권을 구매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한화솔루션의 여수사랑



상품권 구매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365개 섬 발전 마스터플랜 짚는다

‘차별화된 중장기 섬정책’ 마련 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반 조성

여수시가 365개의 섬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 대표 상품으로 키우는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여수시는 최근 권오봉 시장과 전문가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용역을 맡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김학모 원장은 “섬의 특성과 고유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살고 싶고 국민이 가고 싶은 섬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섬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방향과 계획지표, 분야별·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용역방향을 제시했다.

여수시는 섬 현지 조사와 주민 공청회 등으로 섬이 보유한 다양한 생태, 인문자원 등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적인 섬 개발이 아닌 생태·사람 중심의 섬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는 여수 섬의



여수시는 최근 섬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여수시 제공)

경우 과거에 행정구역이 다르므로 역사적 배경, 생활권에 따른 권역별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해양휴양과 치유, 해양레저 관련 사업들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규 전남대학교 교수는 해양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빅데이터 분석 및 가상현실(VR), 증강현실 등의 기술 도입도 제안했다.

섬 주민 대표 3명은 고향화된 섬 주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산 자원 보호구역, 해상국립공원 등의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봉 시장은 “섬 발전 종합계획은 여수 섬에 대한 큰 프레임이 될 것”이라며 “섬이 개발되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섬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개발 이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해달라”를 주문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내년 3월14일까지 지리산 노고단도로 통행 제한

구례군은 겨울을 맞아 지리산국립공원 내 노고단도로(군도 제12호선)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고 13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천은사 주차장~노고단(성삼제)~달궁삼거리다. 통제 기간은 15일

부터 내년 3월14일까지이다. 구례군은 겨울철 상습적인 결빙과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일정 기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수협,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1억 기탁

고흥군수협은 최근 ‘희망2021 나눔 캠페인’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사진)

고흥군수협은 4년 연속 매년 1억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한국여성기업연합회 고흥군분회(회장 이정민)에서도 매년 100만원씩 기부해 동참해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더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귀곤 고흥군수는 “잊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보



내줘서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사랑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N·B

Him e Bionz Solar Energy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